

기호

2

대한출판문화협회 49대 회장 후보

윤철호

사회평론 대표



1962.3.3 생 (54세)

- 1980.03 서울대학교 철학과 입학
- 1985.08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91.08~1992.10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편집장
- 1992.11~현재 (주)사회평론 대표이사
- 2011.02~2014.06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
- 2014.02~2015.12 대한출판문화협회 48대 이사
- 2014.06~2015.02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권한대행
- 2014.08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
- 2015.02~2017.02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 2015.03~현재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
- 2016.02~현재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

선거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8 201호 / T. 02-322-5434 / F. 0303-0956-1626

사회평론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17 / T. 02-326-1182 / F. 02-326-1626 / 담당 나연희 차장

Yoon Chulho



책을 읽는 일, 책을 만드는 일의 소중함을 아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01

하나 되는 출판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온 출판계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단행본, 학술, 과학기술, 종교, 참고서, 교과서, 어린이, 전자책... 분야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책의 소중함을 아는 출판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서로 같은 출판인이라는 동류의식도 갖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힘을 합쳐야 어려운 업계의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학습자료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

동네마다 서점과 도서관이 살아 숨쉬는 풍경을 만들어갑시다.

서점이 사라져 출판사는 배본할 곳이 사라지고 독자들은 책을 구경할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독자도 출판사도 독과점 수준의 대형 서점에 고삐가 잡혀 있는 형국입니다. 도서정가제를 넘어 서점육성법을 만들고 도서관에는 책과 사서들이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독서기반 없이는 선진 문화강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03

출판진흥기금 1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출판은 사양 산업으로 취급받으면서 아무런 투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도매상 부도에 대한 대처, 디지털시대의 출판중흥을 위한 투자, 독서 진흥... 모두 돈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출판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계의 힘만으로도 이룰 수 있습니다.

04

블랙리스트의 집행기구로 전략한 출판진흥원을 출판인의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만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독재정권의 검열기구였던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수명을 연장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출판진흥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그 하부 집행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속히 출판진흥원을 출판인의 것으로 만들어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05

출판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과 정책, 제도를 뜯어 고칩시다.

출판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낡은 유통기구, 어음관행, EBS 등 공공기관들의 출판 산업 진출 특혜, 출판을 홀대하는 잘못된 문화정책과 예산 배정, 저작권 판면권 등 보호받지 못하는 출판권자들의 권리... 이것만 개혁해도 출판은 즉시 살아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고 정부정책을 바꾸고, 업계의 관행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06

전 국민이 책을 읽고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갑시다.

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국민들의 독서문화 조성에 힘쓰지 않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독서문화를 매개로 지역마다 뿌리 내린 서점과 도서관은 물론, 책을 읽는 직장, 독서능력을 개발시키는 학교 교육,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가와 삶의 방식까지 우리 사회 모두, 특히 출판인이 앞장 서서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입니다. 여기에 출판의 미래가 있습니다.